

서교동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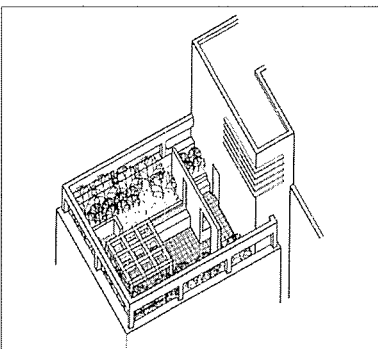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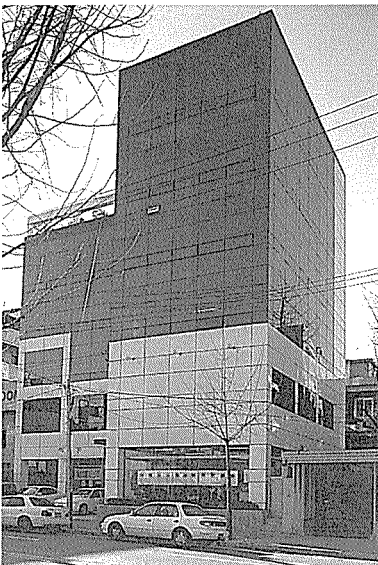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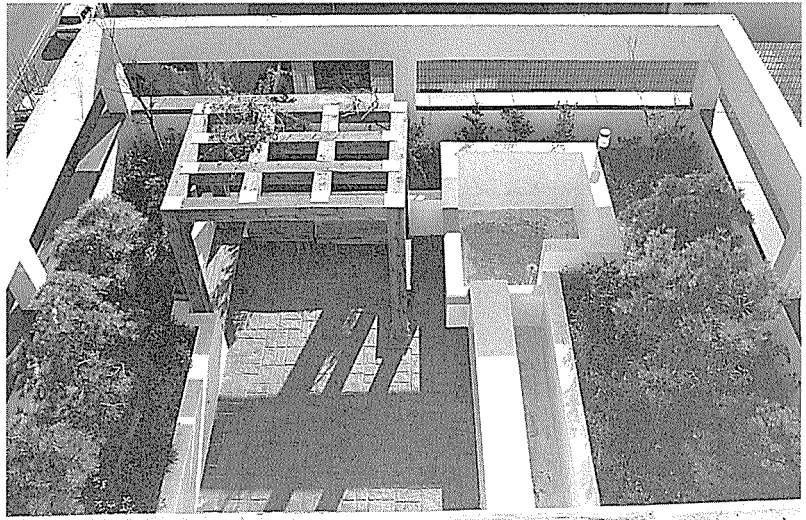
Sukyodong 466

한경호 · 김항년 / (주)에창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n Kyung-Ho & Kim Hang-Nyeon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6-5 |
| 지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
| 대지면적 | 411.60㎡ |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 건축면적 | 231.55㎡ |
| 연면적 | 1,510.16㎡ |
| 건폐율 | 56.26% |
| 용적률 | 300.81%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 최고높이 | 24.40m |
| 외부마감 | 범랑패널, Glass Curtain Wall |
| 내부마감 | 아크릴계 수성페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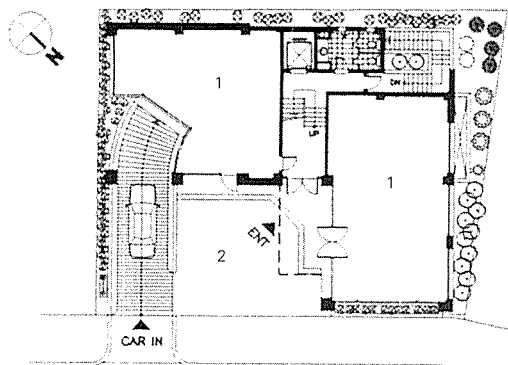
옥상정원

보통의 근생건물이 그렇듯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정 최고 한도로 하여, 다른 건물보다 눈에 잘 띄도록 도로변으로 최대한 근접시켜 보행자에게 위압감이나 답답함을 안겨주고, 조경은 형식적인 식재로 인해 1~2년 후에는 고사하여 도시의 삭막함을 더해주고, 건물의 외관도 준공시의 그럴듯한 모습에서 불과 몇 달 후에는 간판을 위한 구조물로 변신을 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Project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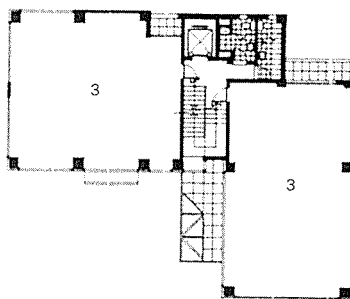
위치는 서교동의 변화가와 주택가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20m 도로변으로서 장소의 특성상 화려하고 복잡한 외관보다는 단순 명료한 외관인 유리 커튼월로 처리해서 투명성을 강조했다. 건물의 배치는 도로변으로 바짝 다가가기보다는 진입공간에 Open Space를 두어 보행자나 사용자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싶었으며, Mass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30평 내외의 임대면적을 수용하여 2개로 분리시키고 중앙에 공용공간을 두었다.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의 통로는 외부계단으로 처리해 수목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감으로써 지하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오염된 지하층의 공기가 건물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었다. 옥상정원을 6층 동쪽 옥상에 만들었다. 파고라, 벤치, 수목뿐 아니라 수공간까지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건물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쉼터로서의 장소를 제공하고 싶었다.

간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역시 이 건물에서도 임대 후 불어날 간판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골칫거리 간판들을 회피하고, 가리고, 못 달게 할 것이 아니라 오브제로서 수용할 수도 있다고 여겨서, 처음부터 간판의 영역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다. 먼저 1층 상점의 광고를 위해 건물 2층 한면을 Solid로 만들었고, 기준층 입주자를 위해서는 옥외에 별도의 간판설치용 post를 설치하여 건물면에 간판이 난무하는 일은 없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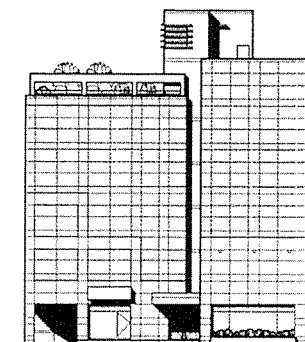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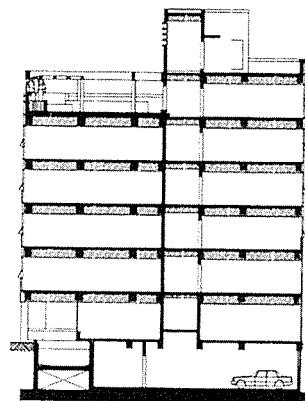


기존층 평면도

- 1. 숯
- 2. 진입공간
- 3.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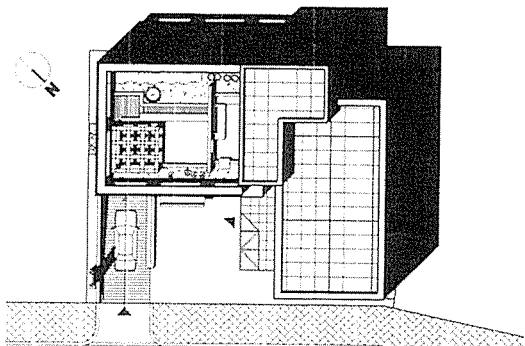


정면도



0 1 3 6 12m

주단면도



배치도

